

“무주 올해의 책 만나요”

27일 ‘리보와 앤’ 집필 어윤정 작가와의 만남·10월 10일까지 독후감 공모전 개최

무주군은 오는 27일 무주상상반디숲 1층 교류·소통 공간에서 “어윤정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윤정 작가는 2025 무주 올해의 책(어린이 분야)으로 선정된 “리보와 앤” 집필 작가로, 이날 콘서트에서는 작가와 만나 작품에 얹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박금규 무주군청 태권문화과장은 “무주군에서는 책에 대한 군민 관심을 높이고 독서 활성화를 위해 군민 추천, 선호도 조사,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의 책을 선정해 널리 알리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작가와의 만남 이외에도 독후감 공모전, 독서 릴레이, 독서 퀴즈 풀든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0월 10일까지는 “2025 무주 올해의



어윤정 작가 초청 북콘서트 포스터

책’ 독후감 공모전도 진행한다. 무주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성인 부문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정지아 작가)”, △중고등부 “인권을 들어 올린 스포츠 선수들(최동호 작가)”, △초등부 “리보와 앤(어윤정 작가)”, 저학년 부문 “네 기분은 어떤 색

깔이니?(최숙희 작가)”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방문 또는 무주상상반디숲 형설지공도서관 누리집)하면 된다.

참가 신청서 및 독후감 작성 양식은 무주상상반디숲 내 형설지공도서관 2층안내데스크에서 받거나 무주상상반디숲 형설지공도서관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수상자는 10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으로, 초등부 최우수상 1명에게는 5만 원이, 중고등부 1명에게는 7만 원, 성인부 1명에게는 10만 원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무주상에게는 초등부 1명이 3만 원, 중고등부 1명 5만 원, 성인부는 1명이 5만 원을 받는다. 장려상은 초·중고등·성인부에서 각각 5명씩 총 15명에게 각 1만 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국회 찾아 지역 현안 건의

최정일 부군수, 정부 예산안 미반영 사업 국회 단계 반영 촉구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가 25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국가예산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안호영 의원실을 찾은 최정일 부군수는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총사업비 187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3단계, 총사업비 43억 원) 예산의 국회 단계 반영을 촉구했다.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은 생태관광 및 치유관광 거점

마련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2단계 종로 시점이 임박한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확장 사업 추진의 시급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무주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 추진 여부가 정부 예산안에 달려있다”라며 “이 사업들이 누락없이 최종 확정돼 무주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이번 2026년도 정부안에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총사업비 450억 원) 국비 2억 원, △법무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총사업비 369억 원) 국비 6억 원, △여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138억 원) 국비 5억 원 등 주요 신규 사업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서 농어촌 기본소득 홍보·서명운동 전개

장수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계시장과 장수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홍보 및 군민 서명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최한주 군의회위원장, 군의원, 관내 시민 사회단체연대 회원, 한국소비자연맹연합 장수군지부 회원 등이 참여해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범군민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장수군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12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고 고령화율이 41%로 전북 평균(26.1%)보다 약 15%p 높아 인구구조 위기가 도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이러한 여건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

멸 위기 농촌 지역임을 보여주며 정책 취지와 정확히 부합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에 최적지라는 평가를 뒷받침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추석맞이 캠페인은 전통시장 살리기와 물가 안정은 물론,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도록 군민과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범군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가 국회를 찾아 상임위원장과 핵심 의원을 잇따라 만나며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품행정’에 나섰다.

지역 현안 해결 ‘발품 행정’

최훈식 장수군수, 국회 찾아 상임위원장에 지원 건의

최훈식 장수군수가 국회를 찾아 상임위원장과 핵심 의원을 잇따라 만나며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품행정’에 나섰다.

최 군수는 지난 8일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24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장을 차례로 만나 장수군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장수군은 이날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직매입 제로화 전처리시설 △공설상하수조성 △백두대간 장안산 역세권 산림복원

등 주요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 지원을 건의하고, △금강 국가하천 승격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장수군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 군수는 건의된 사업들은 모두 주민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현안을 하나하나 챙기기 위해 발품행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관광협의회, ‘빠마이’ 활용 팝업스토어 운영

(사)진안군관광협의회(이사장 이재동)는 2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진안홍삼축제 기간 동안 군 대표 캐릭터 ‘빠마이’를 활용한 특별 체험 공간인 ‘빠마이에 집으로 놀러와’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팝업스토어는 미안산 여행자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움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

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는 아이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전시·놀이·가 결합된 복합형 홍보 공간으로 꾸며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빠마이 포토존 △스탬프 투어(인증샷 미션, SNS 이벤트, 설문조사 참여) △투어 완료 시 기념품 증정 △선착순 플라로이드 촬영 등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축제 대비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진안군은 25일 “2025 진안홍삼축제”가 열리는 축제장 일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경찰, 소방, 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진안홍삼축제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진행했다.

도청을 비롯해 진안군청,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시설물 관련 민간전

문가 등 약 15명이 참여하여 행사장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반은 무대 구조물, 전기·가스시설, 소방시설, 행사 부스, 관람 동선 등 다중 이용시설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집중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곧바로 조치했으며, 중요사항은 보완 조치가 완료된 후에 축제를 진행하도록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의회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지난 24일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의원 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윤수성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실제 행정 현장의 청렴 정책과 제도 운영 사례 등을 접하고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 실천 방안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장수군의회는 지난해 청렴문화 활성화와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최한주 의장은 “청렴은 지방의회의 기본이자, 군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토대”라며 “앞으로도 청렴 교육과 실천을 강화해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 3개소 현장점검

진안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명예도로명 3개소(장화흥런로, 한승현로, 용의길) 안내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명예도로란 법정 도로명과 별도로, 지역사회에 특별한 공헌이나 역사적 의미를 가진 인물·사건·장소를 기리기 위해 부여되는 상징적 도로명으로 군은 24년 1개소(장화흥런로), 25년 2개소(한승현로, 용의길) 총 3개소를 부여하고, 관련 유래를 담은 안내시설물을 설치했다.

군은 현장점검에서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의 훼손·망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아울러 제조작업 및 주변정리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추석 기간동안 진안군을 찾아주시는 방문객 및 귀향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명예도로명을 볼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추진했다”며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